



군종주보

2025년 1월 26일(제1231호)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소중한 편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군인 신부님께’라고 시작되는 몇 해 전에 있던 본당의 주일 학교 친구가 보낸 편지. 손쉽게 한창 쳐서 내려가다가 수정도 가능한 카톡, 문자만 주고받다 보니 편지가 어색하면서도 특별하게 보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게 됩니다.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의 머리말 제일 앞부분이 봉독되었는데, 편지 형식처럼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3절에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테오필로스(Θεόφιλος)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이 루카 복음의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소중한 편지이지요.

이 편지는 4절에 ‘진실’, 진실을 담습니다. 복음은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만들어 내고 꾸며낸 허구나 신화와는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코린토 1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이 목격했던 사실이라고 전합니다. 베드로 2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러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합니다.

복음의 진실, 하느님 말씀의 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 위에 그 기반을 둡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복음은 진실하기에 오늘도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권능이 펼쳐집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나의 기도와 인생살이를 도구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교회는 2020년부터 오늘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지냅니다. 이날 우리는 ‘테오필로스’,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로서 진실한 하느님의 말씀을 편지로 선물 받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은 하느님 백성인 나 자신이 말씀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만나자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진실한 하느님 말씀의 거행을 통해 내 삶을 성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날을 봉헌해야겠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김항래(대진인드레이) 신부
인천해군(인천해역방위사령부) 상무 주임

- 제 1 특 시** 느헤 8,2-4 7.5-6.8-10
회 답 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제 2 특 시 1코린 12,12-3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1,1-4; 4,14-21
영 성 제 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동장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1.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아무쪼록, 충주댁(이경중의 아내)을 빨리 데려다가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제가 서로 이별한 지 4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되어
그간의 회포를 풀지 못하니 망극한 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이것도 오로지 주님의 뜻이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도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목숨을 거두심도 주님의 뜻이니,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우스운 일입니다.

만 번 옆드려 바라오니 마음을 너그러이 하시어 자제하십시오.
영원한 세상에서 모녀의 정을 다시 온전히 이읍시다.

올케 언니! 너무 설워 마세요.
오빠가 비록 죽지만 참된 남편을 두었다고 할 것이니,
언니가 치명자의 아내가 되심을 천만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

『동장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성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 안에 사람들

한 자 한 획 사이
숨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사연도
흘려들을 수 없는 이들.

그 한걸음 한걸음에
만나지는 사람들.

하여,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 누구도 스쳐
지날 수 없는 이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성모자를 그리는 루카 성인



얀 고시트르(Jan Gossaert, 1478년~1532년) / 1520년경 작
나무 위 유화, 110.5×83.5cm / 비엔나 국립미술관, 오스트리아

전설에 의하면 루카 성인은 성모자(아기 예수님)의 환영을 보았고, 이 환영을 바탕으로 성모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처음 그려내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로써 복음사가뿐만 아니라 화가들의 수호성인이 된다.

마치 성당 한쪽 편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도 왼편에 구름에 둘러싸여 공중에 떠서 환영으로 나타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보이고, 오른편에서 루카 성인이 이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천사들과 성스러운 빛에 둘러싸여 천사가 천상의 관을 성모님 머리 위에서 들고 있으며,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의 턱을 어루만지며 모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모님의 얼굴은 다가오는 수난을 알고 계시기에 다소 슬픈 표정이다.



그리고 있는 루카 성인의 손

오른편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성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루카 성인은 그러나 혼자 힘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화가의 오른손을 잡고 그의 손을 인도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 앞에 놓인 신발은 이곳이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십계명 편을 든 모세 조각상

천사의 뒤쪽 위에는 십계명의 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조각상이 보이는데, 모세가 들고 있는 십계명의 판의 모습과 이 현재 공간의 모습이 닮은 모양으로,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이 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 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건축양식이나 장식패턴 등은 르네상스 시대에 개화된 그리스 로마시대의 모티브에 대한 관심의 발현으로, 화가와 성모님 그리고 천사의 다소 정적인 옷 주름 같은 중세적 재현 방식과의 혼용이 흥미롭게 결합된 작품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주일: 백두산 김장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장 영명 축일
때: 1월 26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김장환신부의 해" - "사랑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사도 1:8)